

전남도, 소년체전 등 시설물 안전 강화

건축·전기·소방·송강기 등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전남도는 5월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등 오는 5월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시설물 안전사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엔 건축, 전기, 소방, 송강기, 가스 등 각 분야 공공·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경기장 구조물·마감재 손상 여부 ▲소방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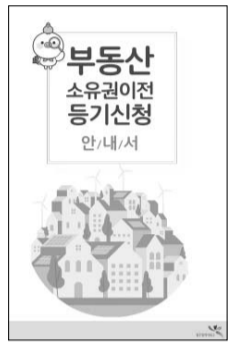
설치·작동 상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전선 노출 여부 ▲가스배관 관리상태·누출 여부 ▲송강기 운행 상태, 도어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미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은 해당 시·군과 함께 신속하게 보수·보강토록 하고 있다. 3월 말까지 56개 경기장, 76건의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했고, 4월 말까지 모든 경기장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호 기자

북구 '부동산 셀프 등기 온라인 안내서' 제작

소유권 이전 절차 등 부동산 등기 전반내용 수록



광주시 북구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

이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주민이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내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성립·신고·이행 ▲세금 신고·납부 ▲정부 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서 작성·제출 등 부동산 등기 전반에 관한 사항이 실려있고 셀프 등기 절차 순서도 수록돼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방문해 '셀프 등기'를 검색하면 소통광장에 게시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안내서를 온라인 바로보기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권형안 기자

서구,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참여자 모집

시설개선 최대 200만원·홍보마케팅 최대 100만원 지원

서구가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서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필수교육인 '희망길라잡이 클래스'를 1회 이상 수강한 자로 5월 4일까지 접수 받는다.

'희망길라잡이 클래스'는 오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2시 30분, 화·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15회차로 진행되는 기본 소양교육이다.

서구는 희망길라잡이 클래스 운영 및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후 점

포경영개선 필요성 등을 심사해 시설개선 75개소, 홍보·마케팅 50개소 총 125개 업체에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및 홍보·마케팅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및 지원을 희망하는 서구 관내 소상공인은 서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2-601-0375)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598개 업체(시설개선 434, 홍보·마케팅 164)의 신청을 받아 169개 업체(시설개선 117, 홍보·마케팅 52)를 선발해 2억5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교육청, 중등교사 교과 아카데미 발대

디지털 기반수업·평가 집중연구·연수 등 밀착 지원



광주교육청이 지난 5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2024 교과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 아카데미는 지난 2023년 부활해 연간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광주형 자료 개발과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한 수업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수업·평가 자료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디지털 기반 학

생 수준별 맞춤 수업·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연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으로 활동 교원 신청이 이뤄져 17개 교과팀(국어, 수학, 영어, 도덕,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술, 가정, 정보, 음악, 체육, 한문, 중국어, 진로) 151명이 올해 활동에 참여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운영 안내, 연구계획 수립 등이 진행됐다.

/조선주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겪어

주52시간 초과 근무자, 괴롭힘 경험 41.3%...15.6% 죽을 생각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공공기관 종사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0.5%)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지난해 1분기 조사 결과인 30.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305명에게 이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자 그중 15.6%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괴롭힘 수

준이 심각했다고 답변했다.

계약직 직장인 A씨는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갑질119에 "계약직인데 정규직 하기 싫으나 자기가 사무실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집 싸고 아웃이라고 협박한다.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일삼기도 한다"며 "계약직이라 불이익이 예상해서 참았다"고 전했다.

근무 시간이 긴 직장인일수록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은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장인 B씨는 "퇴근 시간 10분 전, 30분 전 바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고 정시 퇴근 해야 한다고 말하면 난리가 난다"며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하며 압박한다"고 토로했다.

가장 흔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등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46.6%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응답자가 15.6%에 달했지만 대부분 신고를 하거나 치료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절반 이상(57.7%)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진로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50%에 달했고, 진로나 상담을 받은 이들은 62%에 불과했다.

겨울잠 끝낸 '5·18민주광장 음악분수' 기지개

10월 31일까지...문화전당권 도심 관광 새로운 활력소



동구는 겨울철 재정비기간을 마치고 4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8민주광장음악분수의 중심이자 상징인 '5·18민주광장 음악분수'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5·18민주광장 내 분수대는 1971년 신축돼 5·18광주민주화운동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인정받아 5·

18 주요 사적지 중 하나로 지정된 바 있으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구는 지난해 노후화된 분수대를 재정비하는 '5·18민주광장 음악분수 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미디어아트 영상, 수중 포그 레이저 쇼 등 다채로운 음악분수 프로그

램 운영으로 문화전당권 도심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5·18민주광장 음악분수는 3D 노즐, LED 조명, 4개의 빔 프로젝트, 레이저 등을 통해 다채로운 음악분수 연출이 가능하며, 특히 분수대 물줄기 속에서 나오는 화염은 음악분수 연출의 화려함을 더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동원기 긴 휴식을 마치고 기지개를 켜 음악분수는 모든 세대의 관람객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운영을 위해 올해 13곡을 추가 제작하고 총 81곡의 다채로운 음악분수 연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5·18민주광장 음악분수는 ▲화~목요일 오후 7시 30분(1회) ▲금·일요일과 공휴일(낮 12시 30분, 7시 30분, 9시 30분 등 총 3회)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은 점검을 위해 운영을 중지한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시민 참여에 달렸다

경찰청·노동청 등 정책지원단 회의...종합대책 점검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총무실에서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안전 취약 분야의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시민안전 의식 개선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실천단' 등 2개로 나눠 운영되고 있

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경찰청, 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민실천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실천단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 방식 다양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96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시민 밀착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 구축, 24시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대 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으로 민생 활력"

상반기 목표 54%→60%로 높여...2521억 원 신속 집행

민생경제 안정 총력전에 나선 광주 광산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 신속 집행에 나선다. 당초 목표인 54%보다 높은 60%

를 달성할 예정이다. 상반기 안에 2521억 원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난 4월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집행률 30% 미만인 사업과 5억 원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광산구는 선급 집행 활성화, 긴급입찰, 관급자재 선고지, 공공부문 선결제 등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최근 편성된 1회 추경 예산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속해서 시민과 공유하며 상생의 분위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해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지원 대책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장기화된 경제위기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 대책 발목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부서가 위기 극복 방안을 찾는 '현장 대화'를 추진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동기 기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이유로 대다수였다.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 이상(52%)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고, 회사가 괴롭힘에 대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58%에 달했다. 더욱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40%였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로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며, 적극적인 교육으로 일터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전남도, 장애인 집합 정보화 무료교육 추진

전남도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기관 9개소를 선정, 4월부터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신체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동일 거주지의 직계 가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취업 및 사회 진출 등에 유용한 정보화 자격증 교육과정(초급·중급·고급)을 비롯해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뉴스댓글(SNS)서비스 활용하기 등이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을 통해 총 2만여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나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서 8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외에도 매년 교육 수료생 4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전남사랑 서포터즈 울 들어서만 7000명 모집

전남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동계 전지훈련장,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장 등을 찾아 전남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 홍보를 펼쳐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7000명을 모집했다.

특히 전지훈련장 전남에 체류하는 선수·인원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모집 활동을 펼쳐 비수기업에도 할인 가맹점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인 진해 군항제와 여의도 봄꽃축제장에서는 전남도와 일선 시·군 직원들이 직접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서포터즈 가입을 희망하는 방문객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광양에 전지훈련 등지를 마련한 구기종목의 한 선수수는 "2년째 전남으로 전지훈련을 왔는데 이번에 서포터즈에 가입해 자주 가는 음식점에서 할인혜택을 받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봄꽃축제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지방소멸 위기를 뉴스로 접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했는데, 전남도의 서포터즈 육성사업이 신선하게 다가온다"며 "전남을 응원하는 동반자로 가입했으니 올 여름 휴가는 전남에서 보내겠다"고 밝혔다.